‘동승’ 재창작 연극 ‘삼매경’ 돌아왔다

국립극단 4월 5일까지 공연
작년 초연…관객 · 평단 호평
미완의 인생 버티는 힘 사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창작 연극 ‘삼매경’의 지난해 초연 공연 장면. 사진 제공=국립극단

한국 연극의 고전 ‘동승’을 재창작한 연극 ‘삼매경’이 올해에도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은 4월 5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창작극 ‘삼매경’을 공연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연극 ‘삼매경’은 원작 ‘동승’의 뼈대 위에 새살을 입혀 재창작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원작의 확장, 증폭과 재창조의 모범”이라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이 같은 호평 속에 ‘삼매경’은 2025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삼매경’은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은 한 편의 연극 연대기이자, 한 배우의 자전적 기억의 편린으로 다시 태어난다. 실제 1991년 박원근이 연출한 ‘동승’에서 스물다섯의 나이로 동자승 ‘도념’ 역을 맡았던 배우 지춘성이 세월을 입은 ‘도념’으로 관객 앞에 선다. 지춘성 배우는 당해 ‘동승’으로 제15회 서울연극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제2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인기상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영원한 동승’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극의 배경은 사뭇 다르다. ‘삼매경’은 이순(耳順)의 배우 지춘성이 34년 전 자신의 ‘도념’ 연기가 실패라 여기며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저승길에서 삼도천으로 뛰어들어 과거와 현재, 연극과 현실이 혼재된 ‘삼매경’을 경험한다는 줄거리다. 이처럼 배우의 인생과 이력이 전체적인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삼매경’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벽산희곡상, 서울예술상, 백상예술대상을 석권한 한국 연극계의 이단아 이철희 연출가가 ‘삼매경’의 재창작과 연출을 맡았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의 휘모는 태동력을 무대에 고스란히 풀어놓으면서도 “고전에 대한 저항”을 사조로 원작 ‘동승’의 심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분절하거나 파열하기도 하면서 시대의 연극예술을 그려냈다.

이철희 연출가는 “‘삼매경’은 누군가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수행하듯 견디고 버텨 온 모든 사람의 내적 기록”이라며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이뤄 내기를 요구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삼매경’은 이 고통을 극복하려는 영웅 서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자신의 존재를 끝내 감당하려는 우리 모두의 윤리적인 태도”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새롭게 돌아온 ‘삼매경’은 불완전한 인간이, 미완의 인생을 견디게 하는 힘과 다시 살아가는 존재의 의지를 탐구하는 ‘동시대 사유극’을 표방한다. 연극과 배우의 업(業)을 주요 제재로 삼지만, 방황과 좌절을 경험한, 삶의 어느 한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과 동요가 이는 인간의 실존 의지를 담아냈다.

재연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위트 있는 신선한 불교 굿즈로 화제가 된 해탈컴퍼니와 함께 콜라보한 굿즈들이 공연 현장에서 판매된다. 연극 공연기간 중 극 시작 1시간 전, 종료 후 10분간 명동예술극장 1층 로비 아트숍에서 판매가 진행된다. 당일 공연 실물 티켓 제시하면 10% 할인된 가격에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애매 할인 이벤트도 이뤄진다. ‘삼매경’의 유료 티켓 2장을 소지한 관객에게는 50%의 ‘세 번 봐서 삼매경’의 할인을 제공한다.

연등회보존위,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33개국 90명 지원…2달간 연등회 연계 활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릴 외국인 서포터즈가 모집·운영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는 “연등회의 국제 홍보를 함께할 글로벌 서포터즈 ‘2026 LLF Friends(Lotus Lantern Festival Friends)’를 모집 운영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33개국 90명이 지원해 연등회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보존위 측의 설명이다.

보존위는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자가 고르게 참여했다”면서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연등회의 국제적 확산과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 90명의 지원자 가운데 면접을 거쳐 50명이 최종 선정되며, 합격자들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연등회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봉축점등식에 참여해 활동한 LLF Friends들의 모습.

선발된 참가자들은 사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연등회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 지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SNS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보존위는 “‘LLF Friend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글로벌하게 확산시키고 참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35 조고각하(照顧脚下)

照 顧 脚 下

수행하는 스님들이 모여 사는 산사의 대중방 마루 아래, 댓돌 위에 정갈하게 놓인 흰 고무신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절로 고요하고 맑게 한다. 신발 한 켤레마다 수행자들의 정갈함과 절제가 스며 있다. 그 위에 새겨진 한 마디가 눈에 들어온다. 조고각하(照顧脚下), ‘자기 발아래를 잘 살피라’는 뜻이다.

이 말은 중국 송나라 시대 선서인 〈오등회원〉 ‘삼불야화’에 그 연원을 둔다. 임제종 양기파의 오조산 법연 선사(1024~1104)가 세 제자와 밤길을 걷던 중 등불이 꺼졌다. 스승 법연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한마디 일러 보라고 했다. 불감 혜근은 “화려한 색깔의 봉황이 붉은 하늘에서 춤춘다”라고 했고, 불안 청원은 “쇠 뱀이 옛길에 가로누워 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불과 극근은 “발밑을 비추어 보십시오[看脚下]”라고 말했다. 이에 선사는 “오직 극근만이 능히 내 방에 들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후 ‘간각하’가 ‘조고각하’로 전해졌다.

오늘날 조고각하는 여러 층위로 해석된다. 댓돌 위 신발처럼 주변을 정갈히 정돈하라는 뜻이자, 매 순간 드러나는 자신의 감정과 언행을 비추어 보라는 가르침이다. 불일암의 법정 스님(1932~2010)도 해인사에서의 일화를 전한다.

학인 시절, 스님이 노스님께 부처님과 조사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묻자, 노스님은 “불조(佛祖)의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너희들의 당장의 면목은 어떠하냐”라고 되물었다. 이 물음에 법정 스님은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문득 깨어났다고 한다. 노스님이 말씀하신 당장의 면목이 ‘지금 이 자리의 나’를 묻는 ‘조고각하’이다.

사람은 늘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말과 행위, 생각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맑고 향기로운지 비추어 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 〈마태오복음〉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 티는 보고 네 눈 속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 또한 같은 뜻을 전한다. 〈중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는 신독(愼獨)도 이에 뜻을 같이 한다.

오늘의 지식 기반 사회는 수많은 주장과 담론을 쏟아 낸다. 그러나 그 시선은 대개 바깥을 향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정작 나를 살피는 데에는 인색하다. 불과 극근 선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 “부디 자신의 언행을 잘 살피십시오.” 잘 살피면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 거듭거듭 조고각하!

〈화순 불암사 주지〉

120돌 동국대 ‘목멱 가곡의 밤’ 연다

4월 30일 국립극장서 공연
동국 문인들 詩, 가곡으로
배우 강석우 등 작곡 참여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출신 문인들의 시가 가곡으로 재탄생되는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동국대는 “오는 4월 30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건학 120주년 기념 ‘목멱 가곡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시를 아름다운 가곡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만해 한용운, 서정주, 문정희 등 한국 문학사를 빛낸 동국대 동문 시인들의 작품이 가곡에 덧입혀 무대에 오른다.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1947)와 ‘내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1968) 등의 명시들이 작곡가 최진, 이웅, 배우 겸 작곡가 강석우의 손을 거쳐 가곡으로 새롭게 탄생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시로 만들어진 ‘사랑’(한용운 시), ‘기다리는 마음’(김민부 시), ‘이쯤에서’(신경림 시), ‘축복의 노래’(문정희 시) 등 주옥같은 한국의 애창 가곡들이 함께 공연된다.

클래식에 깊은 조예를 가진 배우 강석우(연극영화 76)가 사회와 해설을 맡아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품격 있는 진행을 선보이며, 소프라노 강혜정·김순영, 바리톤 송기창·이응광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협연하여 감동의 무대를 연출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동국 문인들의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성취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 티켓 판매 수입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